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와 전망

안 주 엽*

I. 머리말

현 정부는 지난 6월 초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등 4대전략으로 64.2%(2012년)에 불과한 15~64세 고용률을 70%(2017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2012년 대비 238만 개(연평균 47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 2(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에서는 명시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주요 추진과제¹⁾로 적시하고,²⁾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³⁾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⁴⁾ 한편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⁵⁾으로써, 2012년 149만 개(15세 이상에서는 183만 개)인 15~64세의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 1) 그 외 주요 추진과제는 장시간근로 개선, 유연근무 확산 등이다.
- 2) 전략 3(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에서는 △여성: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 지원, △청년: 조기 노동시장 진입, △장년: 더 오래 일하기 등 주요 추진과제에서 우회적으로 시간제 근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3)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⑬ 시간제 공무원 발굴 확대 ⑭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 적극 확대, 대체인력의 시간제 채용 의무화 ⑮ 시간제 교사의 법적 근거 마련 ⑯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시간제 활용 확대계획 수립·시행, 정부업무 평가 시 반영 등이다.
- 4)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⑰ 생애주기별 시간제 근로 권리 보장(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인정) ⑱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⑲ 시간제 일자리 컨설팅 사업 내실화 ⑳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 한시적 지원 등 추진 등이다.
- 5)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㉑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법령에 명문화, 불합리한 차별 등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㉒ 불합리한 차별,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실시 ㉓ 시간제 근로자 보

시간제 일자리(임금취업자)를 2017년까지 242만 개로, 즉 93만 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⁶⁾ 현재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간선택제’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노동공급을 설명하는 일-여가모형(work-leisure model)에 따르면, 풀타임 일자리(full-time job/work)만 제시될 때에 비해, 파트타임 일자리/근로(part-time job/work)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개인의 최적화에서 (일-임금소득-소비와 여가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의 만족도(utility 또는 satisfaction)는 적어도 하락하지 않으며,⁷⁾ 이러한 경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더 높다. 특히 가용시간의 제약이 심한 개인에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한데, 실증분석 연구들은 여성, 특히 가사부담이 많은 기혼 중년여성, 고령자, 청년층에서 시간제약을 우회하는 파트타임 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⁸⁾

본고에서 파트타임은 혼돈을 야기하지 않는 한, 시간제, 단시간⁹⁾을 의미하며,¹⁰⁾ 이에 대응하는 풀타임은 전일제, 통상(근로)를 의미한다. 근로시간 형태의 구분을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의 설문인 “지난주에 주업과 부업으로 총 몇 시간 일하십니까?”를 활용한다. 실제 총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36시간 미만이면 파트타임, 36시간 이상이면 풀타임으로 정의한다.¹¹⁾ 즉 본고의 파트타임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평소 단시간근로와 일시적 단시간근로를 포함¹²⁾하는 반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시간제근로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평소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¹³⁾

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이다.

- 6) <부표 1>에서 보듯, 15-64세 시간제근로는 2002년 76만 명에서 2012년 149만 명으로 두 배로 급증하여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5.5%에서 8.8%로 높아졌다. 15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2012년 183만 명, 임금근로자의 10.3%로 2002년 5.7% 대비 4.6%포인트 상승하였다.
- 7) 만족도가 낮아지는 개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택하는 일부 개인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 8) 성지미·안주엽(2007)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제 근로가 전일제 근로에 대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9)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10) …일자리, …근로, …근로자, …취업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 11) 이 조사에서는 설문 “평소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하십니까?”을 통하여 평소에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와 지난주에만 36시간 미만 일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 12) 설문구조상 평소 36시간 미만을 근로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36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복수의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총 36시간 이상 근로하면 파트타임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 1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임금취업자(비임금근로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설문 “지난주의 주된 직장(일)의 취업형태는 어떤 형태로 정해진 것입니까?”에서 취업형태를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로 구분하고, 설문 “주된 직장(일)의 평소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정해진 것입니까?”에서 각 취업형태별 평소 소정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첫째, 지난 10년간(2002~2012년) 파트타임 취업자(와 이의 비중)의 추이를 성·연령계층별로 살펴봄으로써 파트타임이 여성, 고령층, 청년층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통설을 확인하고, 둘째, 이 기간 중 전체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2시간 감축되었는데, 이에 대한 파트타임 증가의 기여도를 밝히며,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인구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트타임 근로의 확산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15세 이상과 15~64세 취업자의 근로시간형태별 분포 및 파트타임 비중의 추이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성별 및 성·연령계층별 파트타임의 추이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취업자 및 근로시간형태별 근로시간을 살펴본 후 지난 10년간 근로시간의 변화(주당 49.8시간에서 44.6시간으로 5.22시간 감소)를 요인분해한다. 근로시간형태별 요인분해(주효과와 구성효과)를 통하여 근로시간 감축의 상당 부분이 풀타임 취업자 비중의 감소, 즉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의 증가(구성효과)에 기인함을 밝힌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 변화를 성·연령계층·근로시간형태별로 요인분해한다. 제Ⅳ장에서는 2017년까지의 성·연령계층별 파트타임 취업자를 전망한다. 이를 위하여 2002~2012년의 성·연령계층별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의 선형추세식을 추정하여 전망치를 구하고, 이를 성·연령계층별 취업자 전망치(추세전망치와 목표치)에 적용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을 간략히 요약한다.

Ⅱ.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

<표 1>과 [그림 1]은 2002~2012년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취업자는 2002년 2,217만 명에서 2,468만 명으로 251만 명 늘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1.08% 정도이다. 주목할 점은 연평균 증가율이 전기 5년간(2002~2007)에는 1.11%이지만 후기 5년간(2007~2012)에는 1.04%로 하락한 것으로, 취업자 증가의 둔화추세를 실감할 수 있다.

취업자 증가율을 근로시간형태별로 보면, 파트타임에서는 4.6%의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풀타임에서는 0.5%에 불과한 수준인데, 지난 10년간 풀타임 취업자는 104만 명 늘어났지만 파트타임 취업자는 147만 명이나 늘어났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2002년 257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3백만 명을 넘고, 2010년 4백만 명, 2011년 5백만 명에 이르렀다가 2012년에는 40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¹⁴⁾

14)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에서 주의해야 할 자료상 문제가 존재한다. [부도 1]은 200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월별 시계열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일부 시점에서 총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특히 18~35시간인 취업자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점프가 발생하고 있

〈표 1〉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

(단위: 천 명, %)

	15세 이상				15~64세			
	취업자	풀타임	파트타임	비중	취업자	풀타임	파트타임	비중
2002	22,169	19,597	2,572	11.6	21,014	18,798	2,216	10.5
2003	22,139	19,438	2,701	12.2	20,998	18,653	2,344	11.2
2004	22,557	19,673	2,884	12.8	21,314	18,809	2,505	11.8
2005	22,856	19,730	3,126	13.7	21,505	18,822	2,683	12.5
2006	23,151	20,020	3,131	13.5	21,716	19,036	2,680	12.3
2007	23,433	20,081	3,352	14.3	21,919	19,022	2,898	13.2
2008	23,577	19,781	3,796	16.1	22,049	18,753	3,296	14.9
2009	23,506	20,032	3,474	14.8	21,960	19,086	2,874	13.1
2010	23,829	19,839	3,989	16.7	22,279	18,923	3,356	15.1
2011	24,244	19,290	4,954	20.4	22,621	18,376	4,245	18.8
2012	24,681	20,637	4,044	16.4	22,897	19,568	3,329	14.5
증가율								
2002~2012	1.08	0.52	4.63		0.86	0.40	4.15	
2002~2007	1.11	0.49	5.44		0.85	0.24	5.51	
2007~2012	1.04	0.55	3.83		0.88	0.57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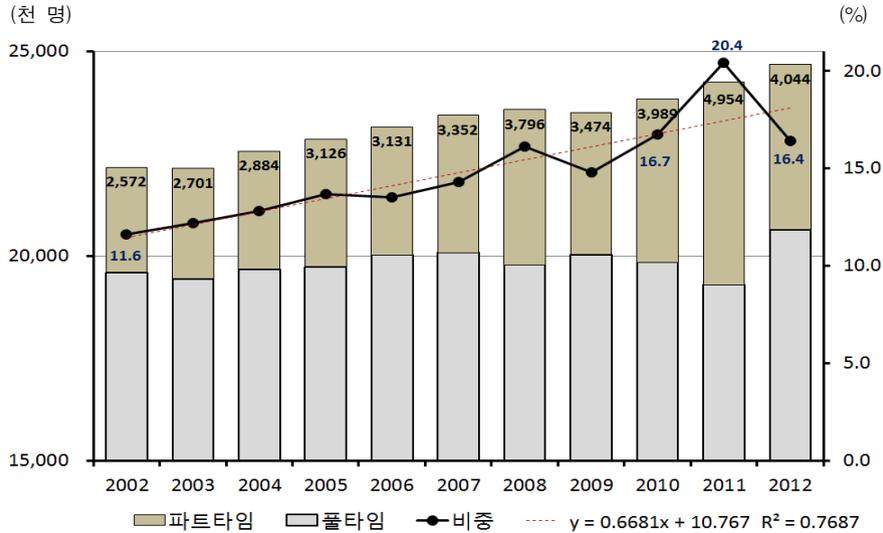
주: 파트타임 취업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파트타임 취업자의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파트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1.6%에서 매년 0.67% 포인트 (선형추세식: 파트타임 비중=10.767+0.6681t) 상승하여 2010년에는 16.7%에 이르렀으며, 2011년에는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2012년에는 16.4%로 하락하였다. 2011년 추세치를 3% 넘어서는 과다수준과 2012년 추세치를 1.7%포인트 하회하는 과소수준은 이미 언급한 자료상 문제로 보인다.

15~64세(65세 이상 고령층 제외) 취업자의 근로시간별 분포 역시 전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15~64세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0.86%로 0.2%포인트 낮고, 둘째, 이를 근로시간별로 보면, 풀타임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0.40%로 0.1%포인트 정도 낮은 데 그친 반면, 파트타임에서는 4.15%로 0.4%포인트나 낮다. 셋째, 취업자 중 파트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4세에서 1.0~1.8%포인트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파트타임 근로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예를 들면, 2011년 8월,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나 본고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림 1]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2002~2012)



주: 파트타임 취업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파트타임 취업자의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는 남성과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시점에서 파트타임의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은 2002년 15.9%에서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2008년 20%를 넘어섰으며, 2011년 27%를 상회하였다가 다소 복귀하여, 2012년에 23.4%를 기록한 반면, 남성에서는 2005년 10%를 넘어선 후 2012년 한때 15%를 넘어서기도 하였지만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대(41.1~41.9%)를 유지하였지만 파트타임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0%로 높은 편이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의 파트타임이 2002년 146만 명에서 2008년 2백만 명을 넘어서고 2012년 240만 명을 기록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5.1%에 이르는 반면, 남성에서는 4% 미만에 불과하며, 남성과 여성의 취업자 증가율이 연평균 1.06%와 1.10%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면, 여성 풀타임 취업자의 증가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풀타임 취업자는 2002년 776만 명에서 2012년 789만 명으로 12.6만 명 늘어나는데 그쳐 연평균 증가율이 0.16%에 불과한데(남성 풀타임 취업자는 91만 명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0.75%), 특히 2006년 793만 명에서 2011년 735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3년과 2009년에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각각 12만 명과 10만 명 감소(이 시점에 남성 취업자는 각각 9만 명과 3만 명 증가)한 점도 전반적 추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 성별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

(단위: 천 명, %)

	취업자		파트타임		파트타임 비중		여성의 비중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취업자	파트타임
2002	12,944	9,225	1,110	1,463	8.6	15.9	41.6	56.9
2003	13,031	9,108	1,147	1,554	8.8	17.1	41.1	57.5
2004	13,193	9,364	1,225	1,659	9.3	17.7	41.5	57.5
2005	13,330	9,526	1,374	1,753	10.3	18.4	41.7	56.1
2006	13,444	9,706	1,350	1,781	10.0	18.3	41.9	56.9
2007	13,607	9,826	1,444	1,908	10.6	19.4	41.9	56.9
2008	13,703	9,874	1,690	2,106	12.3	21.3	41.9	55.5
2009	13,734	9,772	1,452	2,022	10.6	20.7	41.6	58.2
2010	13,915	9,914	1,666	2,323	12.0	23.4	41.6	58.2
2011	14,153	10,091	2,213	2,741	15.6	27.2	41.6	55.3
2012	14,387	10,294	1,638	2,406	11.4	23.4	41.7	59.5
증가율								
2002~2012	1.06	1.10	3.97	5.10				
2002~2007	1.00	1.27	5.41	5.46				
2007~2012	1.12	0.93	2.56	4.75				

주: 파트타임 취업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과 [그림 2]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계층별 파트타임 근로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와 그림에서 보듯, 여성에 추가하여, 중년층과 비교하여 청년층과 장년층 및 고령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파트타임을 활용한다는 통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남성의 파트타임 비중을 연령계층별로 보면, 고령층(65세 이상)에서는 2008년까지 30%를 전후(28.3~31.1%)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2002년 29%에서 매년 0.87%포인트 상승하여 2012년에는 34%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장년층(55~64세)에서는 2011년 19.0%를 제외하면 14.4~16.3% 수준에서 상승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연간 상승속도는 0.22%포인트 정도로 여타 연령층에 비해 느린 편이다.

청년층(15~29세)의 파트타임 근로는 2002년 7.8%에 불과하고 2006년까지는 10%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2010년 14%, 2012년에는 15%에 이르는 수준을 보였으며, 지난 10년간 매년 0.86%포인트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년층(30~54세)의 파트타임 비중은, 2011년 12.2%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여왔는데, 2002년 6.3%의 낮은 수준으로부터 매년 0.31%포인트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2008년과 2011년을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면 매년 0.13%포인트 상승하는 추세에 불과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3〉 성·연령계층별 파트타임 비중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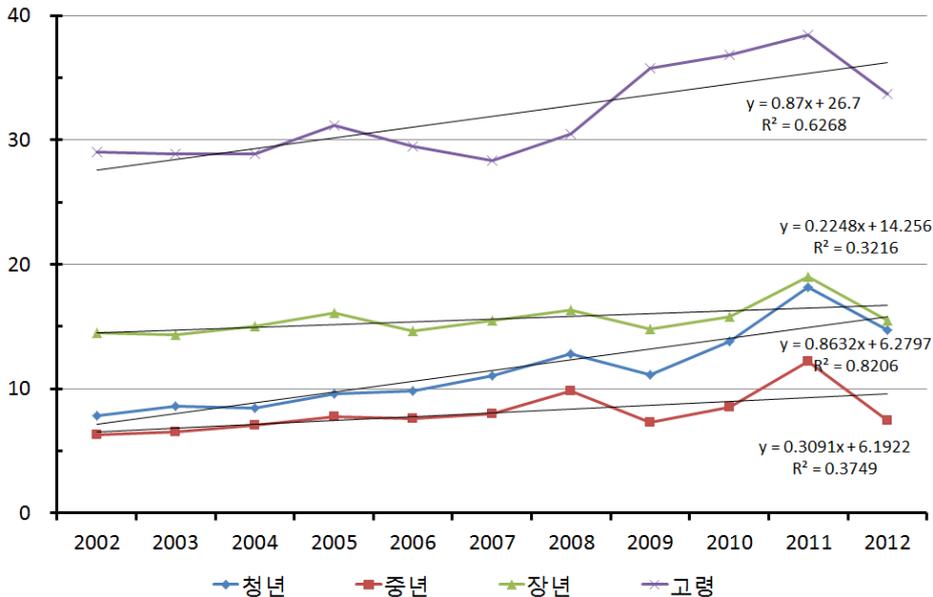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청년	중년	장년	고령	청년	중년	장년	고령
2002	11.6	7.8	6.3	14.5	29.0	12.4	15.1	19.0	32.9
2003	12.2	8.6	6.5	14.4	28.9	14.7	16.0	19.4	34.0
2004	12.8	8.4	7.0	15.1	28.9	14.9	16.9	20.5	32.5
2005	13.7	9.6	7.8	16.1	31.1	15.5	17.3	21.4	34.9
2006	13.5	9.8	7.6	14.6	29.5	16.0	17.2	20.5	33.8
2007	14.3	11.0	8.0	15.5	28.3	18.4	18.1	20.7	32.1
2008	16.1	12.8	9.8	16.3	30.5	20.3	20.0	22.0	35.5
2009	14.8	11.2	7.3	14.8	35.8	17.5	18.8	23.2	42.6
2010	16.7	13.8	8.5	15.8	36.8	21.0	21.5	24.4	46.0
2011	20.4	18.2	12.2	19.0	38.5	25.3	25.2	26.6	50.4
2012	16.4	14.8	7.4	15.5	33.7	21.2	20.7	24.3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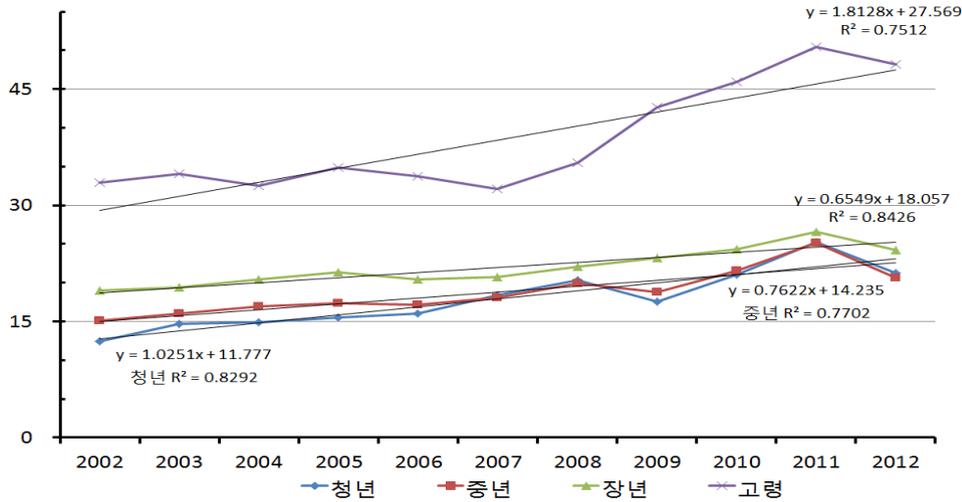
주: 1) 전체 취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2) 청년=15~29세, 중년=30~54세, 장년=55~59세, 고령=6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연령계층별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

(1) 남성



(2) 여성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을 연령계층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2002년에서 2008년까지 30%대(32.1~35.5%)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40%대로 점프하여 2012년에 48%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에는 50%를 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2002년 32.9%에서 매년 1.82%포인트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림에서 보듯, 전반 5년간(2002~2007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 급속히 상승(매년 3.67%포인트)하는 양상이다. 여성 장년층의 파트타임 비중은 2002년 19.0%에서 매년 0.65%포인트의 상승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24.3%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연간 상승속도는 여타 연령층과 비교할 때 상당히 느린 수준이다.

여성 청년층의 파트타임 비중은 2002년 12.4%에서 완만한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2006년 16%에 이르렀는데, 이 기간 중에는 중년층(15.1~17.2%)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면서 2008년 20%, 2011년 25%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2012년에는 21.2%를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는 중년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는 파트타임 근로의 성·연령계층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 2012년 파트타임의 구성은 여성 중년층, 남성 중년층, 여성 청년층, 여성 고령층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 여성 장년층, 남성 고령층, 남성 장년층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남성 청년층은 가장 적게 나타난다. 2002년과 비교할 때, 여성 중년층의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남성 중년층의 비중은 21%에서 17%로, 여성 청년층의 비중은 11.7%에서 10.6%로, 남성 청년층의 비중은 7.2%에서 6.6%로 감소한 반면, 고령층과 장년층의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표 4〉 파트타임 근로의 성·연령계층별 구성

(단위: 천 명, %)

	전체	남성				여성			
		청년	중년	장년	고령	청년	중년	장년	고령
2002	2,572	7.2	21.0	7.8	7.1	11.7	31.2	7.2	6.8
2003	2,701	7.2	21.2	7.4	6.7	12.8	31.4	6.8	6.5
2004	2,884	6.5	21.6	7.5	6.9	12.3	32.0	6.9	6.3
2005	3,126	6.5	22.2	7.8	7.4	11.6	31.0	6.8	6.7
2006	3,131	6.3	21.9	7.3	7.5	11.5	31.8	6.7	6.9
2007	3,352	6.6	21.8	7.6	7.1	12.1	31.8	6.6	6.4
2008	3,796	6.5	24.0	7.2	6.8	11.5	31.2	6.4	6.4
2009	3,474	6.0	19.4	7.5	8.9	10.5	31.8	7.5	8.4
2010	3,989	6.4	19.9	7.4	8.1	10.9	32.2	7.3	7.8
2011	4,954	6.7	23.1	7.8	7.1	10.4	30.7	7.0	7.2
2012	4,044	6.6	17.3	8.2	8.3	10.6	31.1	8.4	9.3

주: 1) 파트타임 취업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2) 청년=15~29세, 중년=30~54세, 장년=55~59세, 고령=65세 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파트타임 근로와 근로시간

1. 근로시간 추이

이 장에서는 파트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5>와 [그림 3]은 취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추이를 근로시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취업자 전체의 근로시간은, 추세식

$$(주당 근로시간)=50.40-0.5814(\text{연도}-2001)$$

에서 보듯, 2002년 주당 49.8시간에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2012년 44.6시간으로 5.2시간, 10.5% 줄어들었다.¹⁵⁾

이를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하여 보면 풀타임에서는, 추세식

$$(주당 근로시간)=54.21-0.4431 \times (\text{연도}-2001)$$

15) 이 기간 중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개정되고 사업체규모별로 주5일근무제의 도입이 확대되어 온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에서 보듯, 2002년 주당 53.7시간에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2012년 49.4시간으로 4.3시간, 8.0% 줄어든 반면, 파트타임에서는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전후한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림 4]에서 보듯, 성·연령 계층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5〉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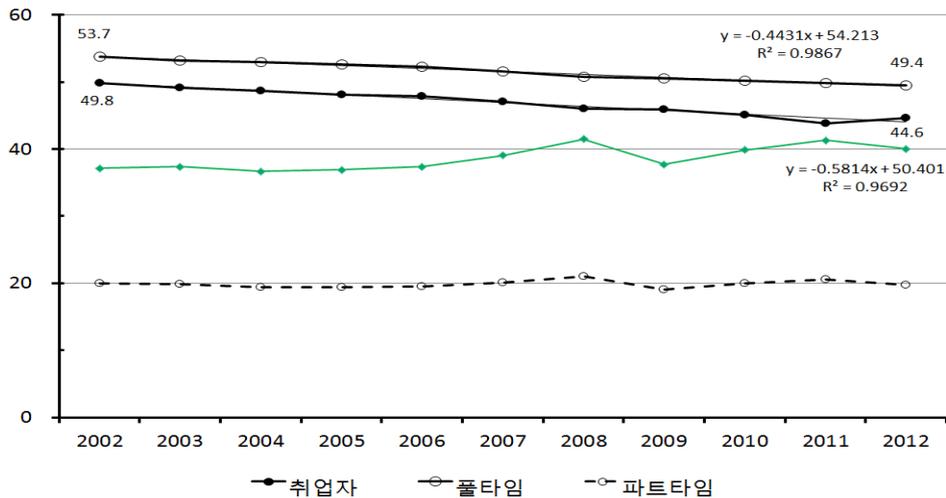
(단위 : 시간/주, %)

	15세 이상				15~64세			
	취업자	풀타임	파트타임	상대근로시간	취업자	풀타임	파트타임	상대근로시간
2002	49.8	53.7	20.0	37.1	50.3	53.9	19.9	37.0
2003	49.1	53.2	19.9	37.3	49.5	53.3	19.7	37.1
2004	48.7	53.0	19.4	36.7	49.1	53.1	19.3	36.4
2005	48.1	52.6	19.4	36.9	48.5	52.6	19.4	36.9
2006	47.9	52.3	19.5	37.4	48.3	52.4	19.6	37.3
2007	47.1	51.6	20.1	39.0	47.5	51.6	20.2	39.2
2008	46.0	50.8	21.1	41.5	46.4	50.8	21.3	42.0
2009	45.9	50.5	19.1	37.7	46.4	50.6	19.1	37.8
2010	45.1	50.2	20.0	39.9	45.7	50.2	20.4	40.6
2011	43.9	49.8	20.6	41.3	44.4	49.8	21.0	42.2
2012	44.6	49.4	19.8	40.0	45.2	49.4	20.2	40.9
2012~2002	-5.2	-4.3	-0.2		-5.1	-4.5	0.3	

주 : 상대근로시간은 풀타임 근로시간 대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근로시간의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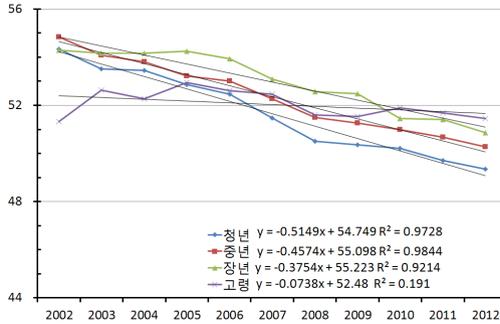
[그림 3] 주당 근로시간의 추이

(단위 : 시간/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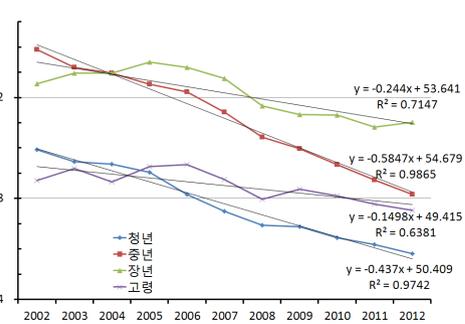


[그림 4]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 : 성·연령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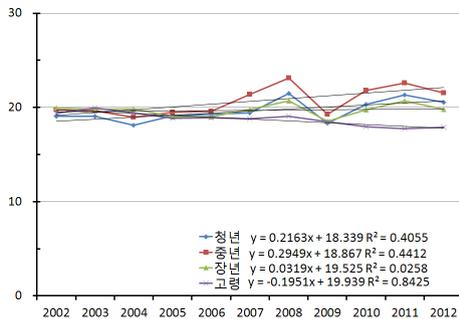
(1) 남성 풀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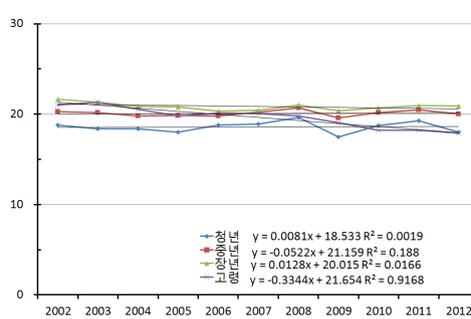
(2) 여성 풀타임



(3) 남성 파트타임



(4) 여성 파트타임



2. 근로시간 감축의 요인분해

근로시간의 변화를 요인분해하기 위하여 먼저, 한 시점에서 취업자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H_t)을 각 취업자 집단(성, 연령계층, 근로시간 형태로 구분)의 평균근로시간($H_{c,t}$)의 가중평균, 즉

$$H_t = \sum \sigma_{c,t} H_{c,t}$$

H_t :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

$H_{c,t}$: 집단 c에 속하는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

$\sigma_{c,t}$: 전체 취업자 중 집단 c에 속하는 취업자의 비중

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두 시점 $[0, T]$ 사이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는

$$\begin{aligned}
 \Delta H &= H_T - H_o \\
 &= \sum[\sigma_{c,T}H_{c,T} - \sigma_{c,o}H_{c,o}] \\
 &= \sum[(\sigma_{c,T}H_{c,T} - \sigma_{c,T}H_{c,o}) + (\sigma_{c,T}H_{c,o} - \sigma_{c,o}H_{c,o})] \\
 &= \sum[\sigma_{c,T}(H_{c,T} - H_{c,o}) + (\sigma_{c,T} - \sigma_{c,o})H_{c,o}] \\
 &= \sum[\sigma_{c,T}\Delta H_c + (\Delta\sigma_c)H_{c,o}]
 \end{aligned}$$

로 표현가능하다. 각 집단의 평균근로시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첫째 항을 주효과(시간효과),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둘째 항을 구성효과, 각 집단별 주효과와 구성효과의 합을 개별효과라 부르기로 한다.

2002년과 2012년 사이의 근로시간 변화를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요인분해하면,

$$\begin{aligned}
 \Delta H &= H_{2012} - H_{2002} = 5.2188 \\
 &= (2012 \text{ 풀타임 비중}) (\text{풀타임 평균 근로시간 변화}) \\
 &\quad + (\text{풀타임 비중 변화}) (2002년 풀타임 평균 근로시간) \\
 &\quad + (2012 \text{ 파트타임 비중}) (\text{파트타임 평균 근로시간 변화}) \\
 &\quad + (\text{파트타임 비중 변화}) (2002년 파트타임 평균 근로시간) \\
 &= (-3.5764) + (-2.5692) + (-0.0275) + (0.9543)
 \end{aligned}$$

로 나타난다. 근로시간 감축의 대부분인 69.9%를 구성하는 주효과 중 대부분은 풀타임에서 평균근로시간이 감축한 결과이며, 나머지 30.1%에 해당하는 구성효과는 풀타임 근로의 비중이 줄어들고 파트타임 근로의 비중이 늘어난 결과이다.

<표 6>은 취업자를 성·연령계층·근로시간형태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의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의 평균근로시간 감축(5.22시간) 중 53.2%(2.78시간 감축)는 남성으로부터, 나머지 2.44시간 감축은 여성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개별집단의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주효과는 남성에서 77%(2.13시간 감축)로 여성에서 64%(1.56시간 감축)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풀타임의 개별효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주효과가 69.3%(2.17시간 감축), 여성에서는 구성효과가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평균근로시간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던 파트타임의 개별효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구성효과가 지배적이다(남성에서는 0.36시간, 여성에서는 0.56시간).

개별효과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청년층과 중년층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장년층과 고령층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청년층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남성에서 2.19시간, 여성에서 1.77시간)의 84~86%(남성에서 1.89시간, 여성에서 1.50시간)가 구성효과에 기인하는 반면, 남성 중년층에서는 80%(1.95시간 감

축 중 1.56시간), 여성 중년층에서는 92%(1.23시간 감축 중 1.13시간)가 주효과에 기인하고 있어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주효과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 이를 압도하는 구성효과로 인해 각각의 개별효과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

〈표 6〉 근로시간 감축의 요인분해

(단위 : 시간/주)

	모든 근로시간형태			풀타임			파트타임		
	개별효과	주효과	구성효과	개별효과	주효과	구성효과	개별효과	주효과	구성효과
전 체	-5.2189	-3.6854	-1.5334	-6.1456	-3.6468	-2.4988	0.9268	-0.0386	0.9654
남성	-2.7753	-2.1299	-0.6454	-3.1399	-2.1749	-0.9650	0.3645	0.0450	0.3195
청년	-2.1859	-0.2969	-1.8890	-2.2493	-0.3129	-1.9364	0.0634	0.0160	0.0474
중년	-1.9522	-1.5619	-0.3903	-2.0826	-1.6130	-0.4696	0.1304	0.0511	0.0793
장년	0.9276	-0.2540	1.1816	0.8418	-0.2523	1.0941	0.0857	-0.0017	0.0875
고령	0.4352	-0.0171	0.4524	0.3502	0.0033	0.3469	0.0850	-0.0204	0.1054
여성	-2.4435	-1.5555	-0.8880	-3.0057	-1.4719	-1.5338	0.5622	-0.0836	0.6459
청년	-1.7745	-0.2793	-1.4953	-1.8317	-0.2658	-1.5659	0.0572	-0.0134	0.0706
중년	-1.2268	-1.1333	-0.0935	-1.5145	-1.1209	-0.3936	0.2877	-0.0124	0.3001
장년	0.4437	-0.0761	0.5198	0.3356	-0.0658	0.4014	0.1081	-0.0103	0.1184
고령	0.1141	-0.0669	0.1810	0.0049	-0.0194	0.0242	0.1092	-0.0475	0.1567

주 : 1) 각 취업자 집단별 개별효과=주효과+구성효과.

2) 요인분해 식에 따라 □ 안의 값을 계산한 후 이로부터 나머지 값들을 단순계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V. 파트타임 근로의 전망

이하에서는 5년 후인 2017년의 파트타임 취업자 수를 전망하기 위하여, 첫째, 2002~2012년 성·연령계층별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을 선형추세식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둘째, 2017년 취업자의 추세 전망치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목표에 따른 취업자 전망치를 구하며, 셋째, 취업자 수 전망치 또는 목표치에 파트타임 비중의 전망치를 적용해 보도록 한다.¹⁶⁾

〈표 7〉은 성·연령계층별로 파트타임 비중에 대해 선형추세식의 추정결과와 2017년

16) 고용률 70% 로드맵이 65세 이상을 제외한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표 7〉 파트타임 근로의 전망 : 취업자 중 비중

(단위 : %, %p)

	15세 이상	15~64세	남성				여성			
			청년	중년	장년	고령	청년	중년	장년	고령
실적치 및 전망치										
2002	11.6	10.5	7.8	6.3	14.5	29.0	12.4	15.1	19.0	32.9
2012	16.4	14.5	14.8	7.4	15.5	33.7	21.2	20.7	24.3	48.2
2017	21.5	19.3	20.1	11.1	17.9	40.6	28.2	26.4	28.5	56.6
2002~2012	4.8	4.0	6.9	1.1	0.9	4.7	8.8	5.5	5.2	15.2
2012~2017	5.1	4.7	5.3	3.7	2.4	6.9	7.0	5.7	4.3	8.4
추세식										
절편	10.77	9.95	6.28	6.19	14.26	26.70	11.78	14.24	18.06	27.57
기울기	0.6681	0.5831	0.8632	0.3091	0.2248	0.8700	1.0251	0.7622	0.6549	1.8128

주 : 추세식은 (파트타임의 비중)=(절편)+(기울기)(연도-2001)으로 선형으로 추정.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추세식의 추정치를 보면, 기울기는 여성 고령층에서 1.81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여성 청년층(1.03), 남성 고령층(0.87), 남성 청년층(0.86)의 순이며 남성 중년층과 남성 장년층에서는 각각 0.31과 0.22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파트타임 비중의 증가 역시, 여성 고령층과 여성 청년층에서 8.4%포인트와 7.0%포인트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남성 중년층과 남성 장년층에서는 3.7%포인트와 2.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2017년 취업자 중 파트타임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15세 이상에서는 21.5%, 15~64세(고령층 제외)에서는 19.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계층별로 보면, 여성 고령층에서 절반을 훨씬 넘고, 남성 고령층에서는 4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여성의 여타 연령계층에서는 26~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남성 청년층에서는 20%, 남성 장년층에서는 18% 정도에 이를 것이지만, 남성 중년층에서는 여전히 10%를 다소 상회하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8>은 15~64세 인구집단의 성·연령계층별 파트타임 근로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추세)전망치는 취업자의 추세전망치에 파트타임 비중의 전망치를 적용한 것이다.17) 이에 따르면, 2012년 333만 명이던 파트타임 근로는 향후 5년 동안 126만 명(37.9%) 늘어 2017년에는 4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7) 로드맵의 취업자의 추세전망치에 따르면, 2017년 15~64세 취업자는 2012년보다 약 82만 명 늘어난 2,372만 명, 고용률은 65.7%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나타난다. 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취업자의 추세전망치로부터 각 성·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추세전망치를 계산한 후 해당 인구집단의 파트타임의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표 8〉 파트타임 취업자 전망(15~64세)

(단위: 천 명)

	15~64세	남성			여성		
		15~29세	30~54세	55~64세	15~29세	30~54세	55~64세
2002	2,216	186	541	200	302	802	185
2012	3,329	269	702	331	429	1,258	341
2017 (추세)	4,590	360	1,011	521	569	1,591	538
2017 (목표)	4,965	384	1,028	555	601	1,768	627
2012~2017 (추세)	1,261	92	309	190	140	333	198
2012~2017 (목표)	1,635	116	327	224	172	510	287
목표-추세	375	24	17	34	32	178	89

주: 로드맵에 나타난 15~64세 취업자의 추세전망치와 목표치에 <표 7>의 파트타임 비중의 전망치를 적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5~64세 파트타임 취업자의 증가는 여성 중년층과 남성 중년층에서 각각 약 1/4(33만 명과 31만 명), 여성 장년층과 남성 장년층에서 각각 15% 내외, 여성 청년층과 남성 청년층이 각각 11%와 7%를 차지한다. 그 결과 2017년 파트타임은 여성 중년층이 35%, 남성 중년층이 22%를 차지하고, 여성 청년층, 여성 장년층, 남성 장년층이 11~12%를 차지하며 남성 청년층은 8% 미만이다.

2017년 (목표)전망치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취업자 목표치에 파트타임 비중의 전망치를 적용한 것이다.¹⁸⁾ 이에 따르면, 파트타임 근로는 향후 5년 동안 164만 명(49.1%)이 늘어 2017년에는 4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타임의 추세전망치와 목표(전망)치 사이에 약 38만 명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8만 명은 여성 중년층, 1/4에 이르는 9만 명은 여성 장년층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근로를 유인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5~64세 파트타임 취업자의 증가는 여성 중년층에서 약 1/3(51만 명), 남성 중년층에서 1/5(33만 명), 여성 장년층에서 18%, 남성 장년층에서 14%, 여성 청년층과 남성 청년층이 각각 11%와 7%를 차지한다. 이 목표치에 따르면, 2017년 파트타임의 구성은 여성 중년층이 36%, 남성 중년층이 21%, 여성 청년층, 여성 장년층, 남성 장년층이 11~13%를 차지하고, 남성 청년층은 8%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 로드맵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취업자 목표치에 따르면, 2017년 15~64세 취업자는 2012년보다 238만 명 늘어난 2,528만 명으로 취업자의 추세전망치보다 156만 명 많다. 이에 따른 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각 성·연령계층별 취업자의 목표치에 해당 인구집단의 파트타임의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V. 맺음말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 주간 중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취업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취업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추세전망치와 고용률 70% 로드맵의 취업자 목표치에 따른 파트타임 취업자 전망치 사이의 차이를 인구학적 집단별 구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향후 여성 중년층과 여성 장년층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근로를 유인하는 적극적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로드맵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에 걸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수준, 저조한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부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비정규직의 특성과 일치한다.

고용률 70%로 향하는 5년의 여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진력하여야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들이 생애주기(life-cycle)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파트타임 근로와 풀타임 근로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모든 일자리와 직무가 파트타임 근로자에 의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파트타임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장시간근로 관행에 젖어 있는 근로문화 또는 조직문화를 개혁하는 수준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로드맵은 인식전환을 통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KLI**

<참고문헌>

성지미·안주엽(2007), 「시간제근로에서 자발성과 일자리 만족」, 『노동경제논집』 30(1), pp.109~137.

〈부표 1〉 시간제 근로의 추이

(단위: 천 명, %)

	15세 이상				15~64세			
	취업자	전일제	시간제	비중	취업자	전일제	시간제	비중
2002	14,030	13,223	807	5.7	13,760	13,000	761	5.5
2003	14,149	13,220	929	6.6	13,869	12,998	871	6.3
2004	14,584	13,512	1,072	7.3	14,262	13,260	1,002	7.0
2005	14,968	13,924	1,044	7.0	14,599	13,636	964	6.6
2006	15,351	14,216	1,135	7.4	14,914	13,891	1,023	6.9
2007	15,882	14,681	1,201	7.6	15,383	14,314	1,069	6.9
2008	16,104	14,875	1,229	7.6	15,611	14,539	1,073	6.9
2009	16,479	15,053	1,426	8.7	15,850	14,634	1,216	7.7
2010	17,048	15,428	1,620	9.5	16,398	15,046	1,352	8.2
2011	17,510	15,808	1,702	9.7	16,793	15,387	1,407	8.4
2012	17,734	15,907	1,826	10.3	16,953	15,460	1,493	8.8
증가율								
2002~2012	2.37	1.87	8.52		2.11	1.75	6.97	
2002~2007	2.51	2.11	8.30		2.25	1.95	7.03	
2007~2012	2.23	1.62	8.74		1.96	1.55	6.92	

주: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원자료.

〔부도 1〕 경제활동인구조사상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2000.1~2013. 8)

(단위: 천 명)

